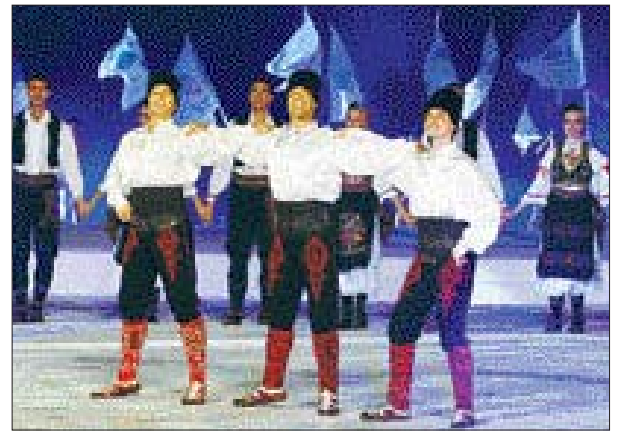




2007년 8월 18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11일간의 열전을 마친 전 세계 대학생들이 화려한 불꽃 속에서 다음 개최지인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만남을 약속했다.



### 유치 경쟁에 큰 역할을 하는 대회 성적 한국 방콕대회서 5위 ‘차별화 전략’이 관건

2007년 방콕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중국이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2개를 획득하며 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금메달 28개로 각축을 벌였지만, 은·동메달에서 26개를 앞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따돌리고 2위에 올랐다. 일본이 금메달 19개로 4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금메달 15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8개를 수확해 5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태권도에서 금메달 7개를 휩쓸며 중국주의 자존심을 저지르고, 수영에서는 기대주 정승기(19·연세대)가 여자 평영 2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는 등 한국신기록 5개가 쏟아졌다. 개최국인 태국은 한국에 이어 금메달 13개로 6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냈다.

태권도에서 금메달 7개를 휩쓸며 중국주의 자존심을 저지르고, 수영에서는 기대주 정승기(19·연세대)가 여자 평영 2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는 등 한국신기록 5개가 쏟아졌다. 개최국인 태국은 한국에 이어 금메달 13개로 6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냈다.

태권도에서 금메달 7개를 휩쓸며 중국주의 자존심을 저지르고, 수영에서는 기대주 정승기(19·연세대)가 여자 평영 2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는 등 한국신기록 5개가 쏟아졌다. 개최국인 태국은 한국에 이어 금메달 13개로 6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냈다.

/최경원기자 cki@kwangju.co.kr



2007 방콕 유니버시아드대회 폐막식에서 다음 대회 개최지인 세르비아의 대학생들이 전통 춤을 선보이고 있다.(위) 태국 무용수들이 폐막식에서 전통 춤을 현대화시킨 공연을 펼치고 있다.

# “Thank You 방콕” 세계인에 감동 선사

2007년 8월 태국의 수도 방콕은 화려찬란한 색깔에 파묻혔다.

호텔과 도로·주요 거리에는 유니버시아드를 상징하는 대회깃발과 대회 마스크가 그려진 깃발로 뒤덮였다. 각 대회와 주요 경기장에는 151개 참가국의 국기가 휘날리고 거리에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발걸음 가득 찼다.

8일 오후에는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24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개막식이 열린 라자망갈라 경기장은 158개국의 1만2천여명의 선수와 대회 관계자·3천여명의 개막식 공연 참여자·3만5천여명의 관람객들의 환호로 가득했다.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유니폼과 각 국의 전통복장을 한 선수들은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입장해 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1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 선수단은 79번째로 입장했다.

선수단 입장의 피날레는 태국 선수단이 장식했다. 마지막으로 입장한 400여명의 태국 선수단은 개최국인 만큼 관람객들의 기립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 개·폐막식, 화려한 쇼 볼거리

이어 오케스트라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 국제대학 스포츠연맹(FISU) 깃발과 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가 게양됐고, 조지 킬리안 FISU 회장은 환영 연설로 선수단을 격려했다.

태국 왕실 경호대의 말 30여 마리가 행진하면서



### <제 1부> U대회 도시를 가다 8 태국 방콕 (하)



2007년 8월 18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제24회 유니버시아드대회 폐막식에서 영국 선수들이 '방콕 감사합니다. 베오그라드에서 만납시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고, 태국 국왕의 손녀인 시라와리 나리랏(Sirivannavari nariratana) 공주가 성화를 건네받아 성화대에 점화했다.

성화 점화와 함께 수심 밤의 축포가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자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과 각 국의 선수단들은 웅장하고 눈부신 성화에 환호를 보냈다.

이어 마하바지라롱콘(Maha Vajiralongkorn) 태국 왕세자가 11일 동안 세계 젊은이들의 열전을 알리는 대회 계입을 선언했고, 태국의 베드민턴 에이

스 분삭 폰사나(Boonsak Ponsana)가 정정당한 대결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대회선서를 했다.

선수단이 퇴장한 뒤에는 태국의 전통복 연주·태국 국왕을 상징하는 흰 꼬끼리 모형을 이용한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날 개막식에는 태국에서 가장 큰 폭 9m짜리 LED 영상 스크린이 관람석 정면에 설치돼 화려한 영상상을 선보였고, 현란한 레이저 공연으로 관중을 환상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개막공연은 태국이 이때까지 보여준 쇼 중 가장 화려하고 70만 바트(한화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불거리였다.

개막식과 함께 참가 선수들은 18일까지 11일간 육상·수영 등 15개 종목에서 236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대결에 들어갔다.

### 선수 경호·거리질서 유지 최선

대회기간 동안 6천여명의 자원봉사자와 방콕 시민들은 경기장과 선수촌·거리 곳곳에서 외국 손님들을 따뜻한 손길로 맞았고, 방콕 경찰도 선수 경호에서부터 거리질서 유지 등에 최선을 다했다.

방콕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11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18일 아쉬움 속에 폐막식이 열렸다.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경기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는 2009년 대회 개최국인 세르비아 대표단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기가 전달됐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치러진 폐막식에서는 각국 선수단들이 대회기간 동안 우정을 나눴던 다른 나라 선수들과 서로 마지막 우정을 나누며 다음 대회 개최지인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만남을 약속했다.

공식 폐막식 뒤에는 오케스트라와 합창그룹의 공연·다음 개최지인 세르비아 학생들의 전통 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방콕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세계 스포츠 종합대회의 이번 유니버시아드는 전통스포츠 강국인 유럽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열린 경쟁을 펼쳤다. /방콕=최경원기자 cki@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sections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금보부동산건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지공인중개사',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nd '한일지도판매(주)'. Each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